

1 제18333호 2판
2009년 4월 4일 토요일

난 거·친·남·자

드라마 '남자 이야기' 박용하




“ 새로운 변신 두렵지 않아
내 실제 성격과 비슷
착한 척 안해도 되니
연기하기 오히려 편해요 ”

“이번에 맡은 역은 제 실제 성격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연기하기가 편해요.”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필해온 박용하(32)가 거친 남자 역을 맡으면서 “내 실제 성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용하는 내달 6일 시작하는 KBS 2TV ‘남자 이야기’(극본 송지나, 연출 윤성식)에서 세상에 대한 복수에 나서는 주인공 김신 역을 맡았다.
평범한 삶을 살던 김신은 사채 빚을 지고 자살한 형의 복수에 나섰다.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칠게 변신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웨라타워컬호텔에서 만난 박용하는 “거친 면이 좋다. 연기하는 입장에서 굳이 연출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맡아서 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칠게 연기하는 것이 편해요. 평상시처럼 욕도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뽀로로를 하거나 순한 역할을 할 때는 순진한 척, 착한 척을 하려고 노력해야하는데 지금의 김신은 그런 척을 하지 않고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편해요. 제가 입이 좀 거친 편이고 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면이 김신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안 쉬다 지난해 SBS TV ‘에어’로 복귀한 박용하는 영화 ‘작전’에 이어 이번 ‘남자 이야기’까지 쉬지 않고 작품을 하고 있다.
그는 “너무 잇따라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닌 거 고민도 했지만 ‘매우기도 한철’이라고 마음에 드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웃었다.
“일단 작품과 캐리터

가 마음에 들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와 거슬린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자 이야기’가 송지나 작가님의 작품이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일각에서는 그가 일본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는 것을 들어 그의 ‘변신’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용하는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텐데 일본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드러운 이미지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눈치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전작인 영화 ‘작전’에 이어 ‘남자 이야기’에서도 주시, 돈과 얽히게 된다. ‘남자 이야기’에서도 그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드립팅을 이뤄 주식을 통해 세상에 복수를 하려고 한다.
“연달아 주식과 관련된 소재의 작품을 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며 웃으며 그에게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주식은 하지 않고 펀드를 많이 하는데 그것 역시 원금보장형을 선호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이율이 높았을 때 적금을 많이 넣어놓기도 했어요. 저희는 목돈이 들어오는 직업이다보니 그 돈을 모아 놓았다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죠. 결혼도 해야하니 집을 사거나 크기를 늘려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박용하는 “요즘은 일 욕심이 많이 든다. 끊이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연기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며 “또 개인적으로는 바르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콘 '분장실의 강선생님'
개그우먼 안영미



“골룸 분장을 해야 안영미인지 알아보셔요. 이게 약간 안 좋은 점이에요. 하하”
듣고보니 정말 달래마다. 해괴한 골룸 분장을 해야 비로소 알아본다니... 하지만 그는 씩씩하다.
“그래도 저의 골룸을 사랑해주시니 그게 어딘가요. 분장해서 창피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예쁘게 차려입고 못 웃긴다면 그게 더 창피하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개그우먼으로서의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분장실의 강선생님’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우먼 안영미(26)는 인터뷰 내내 유쾌하고 경쾌한 모습을 보여줬다.
“며칠 전 미친 척하고 명동 거리를 혼자서 1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간혹 10대

“골룸 분장 안했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들이 ‘안영미 아니?’라고 수군대기는 했지만 확신이 안 서는지 그러다 말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전혀 못 알아보셨어요. 하하.”
‘분장실의 강선생님’은 여배우들의 분장실을 무대로 선후배 4명의 역할관계를 세밀하게 풍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분장실의 강선생님’이 인기를 끄는 것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제 역할을 보고 ‘우리 선배랑 똑같아요. 그 선배가 이 코너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라는 인터넷 댓글이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여성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조직에서든 이러한 위계질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극중 안영미의 대사들은 벌써 유행어가 됐다. “야, 우리 때는 선배 허락받고 아팠어” “미친 거 아니?” “완전 어이없어” “다 나를 생각해서 그런거야 이것들아” 등 ‘주옥’ 같은 대사들은 그의 약간 새는 듯한 알미운 어투를 타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타프리고 있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
정치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부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어린이재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
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결여없는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변유, 불후유, 배터, 쉼이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를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질병 및 경각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거, 편광, 수족저편,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